

## | 출장보고서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국경제사회위원회(CESC)를 가다

## CESC 공식 초청, 경사노위 의제개발조정위원회 등 참석

손옥이 국제협력 전문위원

### 중국 초청 프로그램 개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중국경제사회위원회(이하 CESC)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 5월 29일(수)~6월 4일(화)까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CESC를 방문하고 초청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방문단은 경사노위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초청은 2018년 9월 파리에서 열렸던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총회 당시, 문성현 위원장과 중국경제사회위원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2019년 3월 남미 퀴라소에서 있었던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이사회에서 구체화되었다.

방문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양국 사회적 대화 기관 간 정책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 정례화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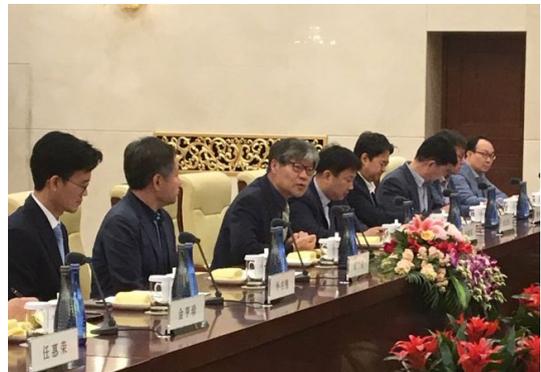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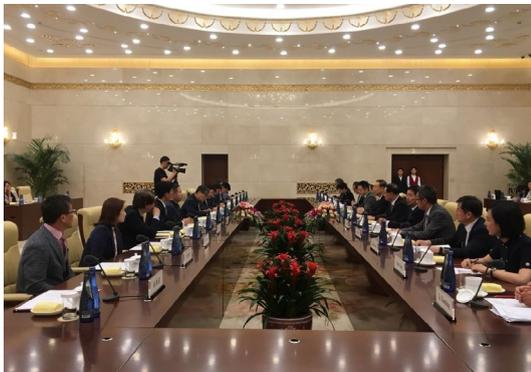
대표단은 먼저 베이징에서 주중한국대사 접견을 시작으로 중국경제사회위원회, 중화전국총공회, 중국기업연합회 등 중국의 노·사·정 기관을 모두 방문하였다. 특히, 전국규모 노동조합 조직인 중화전국총공회에서 주최한 「한·중 사회적 대화 전문가 토론회」에 참가하여 발제와

토론을 하였다.

또한 대표단은 한국투자기업(현대차3공장), 베이징의 농업회사(Xinfadi) 및 충칭의 제조업체(Loncin motors), 충칭시 인민정치협상회의를 방문하여 중국 자본·노동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CEESC와의 간담회

CEESC와의 간담회에서 박태주 상임위원은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두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하며, 향후 양국의 협력을 명문화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과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에 대표단이 방한하여 중국의 사회적 대화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CEESC 위원장은 “한국과 중국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 분야에 대한 정보교류, 세미나 개최, 양기관 방문 등으로 한층 더 깊은 협력관계를 도모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아시아국들의 우방관계 형성을 통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경제사회위원회(CEESC)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의 산하기구로 경제·사회 문

제 통합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전국 단위 비영리 단체이며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 회원국이자 아시아 이사국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정협은 각 정계의 대표로 구성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책자문기구. 1954년 헌법에 의거 기능이 전국인민대표 대회로 이관될 때까지 사실상 중국 의회의 역할을 수행

2008년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 이후 우리 위원회와 10여 년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CESC는 이번 초청을 계기로 협력관계의 명문화를 제안하였다.

## 양국 사회적 대화 분야 전문가 토론회

이번 초청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두드러졌던 프로그램은 양국 사회적 대화 분야 전문가 간 토론회였다. 먼저 우리 측 박태주 상임위원이 “한국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존중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노사정 삼자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결과로부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노동존중사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덕재 수석전문위원은 「한국의 사회적 대화 경과 및 현황」에 대해 발제하고, 경사노위의 의제별·업종별 회의체를 소개하면서 “최근에는 노동임금 격차, 저임금, 양극화, 디지털 전환 등이 중요한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화전국총공회 지양광핑(Jiang Guangping)부위원장은 「중국의 사회적 대화와 노사관계」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중국의 노사정 대화는 중화전국총공회와 중국기업연합회, 정부 등 삼자 체계이며, 중국의 노사정 기구는 국가적 규모 1개와 시(市), 성(省) 등 지역별로 약 2,000여 개가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중국의 노사관계는 현재 안정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에 따른 권리보호 문제 등 많은 리스크와 도전을 받고 있다. 공회는 삼자 체계 강화, 노동입법정책 제정, 조화로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행사의 심화·발전, 단체 협상·협력 심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국 전체취업자 중 비정규직 규모는 약 10%정도로 주로 생활서비스업(가사도우미, 택배 등)에서 발생하며, 비정규직 문제에 어떻게 대응 할지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므로 양국의 경험 공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중국기업연합회 방문 및 간담회

중국기업연합회(CEC) 방문에서는 한·중 양국의 노동조건(법정노동시간, 결혼휴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최근 중국의 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노력 및 노사관계 현황을 청취하였다.

중국기업연합회는 1979년 설립되어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역·업종별로 구성된 다른 기업인단체와 달리 총괄적 연합단체이며, 중국 내 경제단체로는 가장 크다. 정부와 기업 및 기업인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 및 노동조합(공회)과 함께 노사관계 조정을 위한 삼자체계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역할로는 중국 내 기업과 기업인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기업과 관련된 법제도·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한 이론과 관행 조사·연구, 우수기업 표창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북경 현대차 등 중국기업 방문 및 간담회

출장단은 또한 최근 중국 자동차시장 동향 공유 및 중국 진출 우리투자기업체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경현대차 3공장을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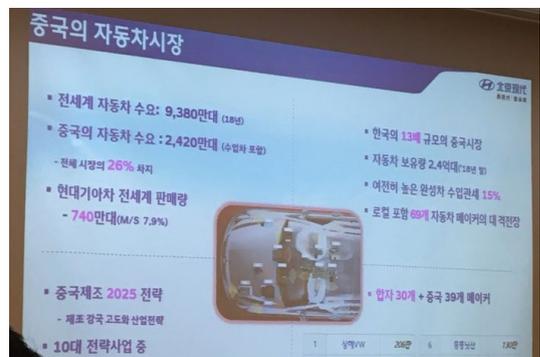
북경현대차는 한중합자회사로 2002년 10월 18일에 설립되었고 연간 13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 현대차는 지역 4개 공장(북경:2개, 창저우:1개, 중경:1개)과 253개 협력사를 보유하고 있고 부품의 97.6%는 중국 현지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2.4%는 한국에서 수입한다.

그간의 성과로는 2018년 12월 누적판매 1천만 대 달성(중국진출업체 중 7번째 달성), J.D 파워 만족도조사(초기품질 2년 연속 1위, 내구성 1위, 정비고객만족도 3위, 판매만족도 2위), 사회공헌활동(내몽고 녹지화사업, 재난 구호활동, 장학사업 등)이 있다.

### 〈중국 자동차시장 동향〉

#### 중국 자동차시장 동향

- 연간 2,420만 대 판매 (연간 세계 판매 대수의 25% - 연간 생산된 차량 4대 중 1대는 중국에서 판매됨)
- '18년 말 현재 중국 내 차량 보유 대수는 2억 4천만여 대
- '18년 친환경 차량 124만 대 판매(전 세계 판매된 친환경 차량의 50%에 해당)



또한 대표단은 CESC 이사 기업인 베이징 쉰파디(Xinfadi) 농업회사를 방문했다. 이 회사는 일일 4만 톤의 과일과 채소를 베이징에 공급하며 베이징 외에도 대규모 도시에 거점 물류 센터 있으며, 365일 하루 24시간 운영 중이다.

직접고용 규모만 2,700명으로, 노동자들은 교대 근무로 1일 평균 6시간정도 근무하며, 회사 내 공회(노동조합)가 있어 노동자 보험가입 및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두드러진 점은 도·소매유통 90% 이상 전자화폐로 거래되며 현금 거래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단은 중국 발전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혁신기업인 충칭의 론신 모터스도 방문했다. 이 제조업체는 2018년 충칭시 모범기업, 10년 연속 중국 500대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노사관계 모범기업이다.

직원의 평균 연령은 36세로 연간 직원 사직 비율은 8% 수준이라고 한다. 주요 생산품은 오토바이 및 자동차 엔진으로(BMW 등 주요 완성차회사에 납품) 헬리콥터, 드론, 농기계, 무인차량용 엔진도 생산하고 있다.

노동자대표위원회(700명)가 존재하며, 대표위원회 내 상무위원회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

하고 있다. ‘노사문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간 20여 건의 문제를 해결(분쟁의 90% 해결)한 바 있으며, 노동자들의 자녀 학비, 내 집 마련 등의 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대표단은 충칭시 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부주석과 면담을 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광복군총사령부 등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충칭·한국 간 우호적 관계와 현재의 활발한 무역교류 현황을 공유하고, 더 나은 협력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박태주 상임위원은 “중국의 급속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경험과 정보교류는 향후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4차 산업혁명 등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에서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함께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충칭과 한국의 협력〉

- 충칭시는 서부경제의 중심지로 경제협력 발전에 중요한 지리적 전략적 위치
- '17. 12월 문대통령은 충칭 방문 시 대한민국임시정부 참관 및 광복군총사령부 기념관 설립을 제안
- '19. 3월 이낙연 국무총리 방문
- '18년 기준 충칭시에는 SK하이닉스, 현대 자동차 등 252개 한국기업이 있음

- 화물부문에서 한국은 충청시의 제1의 수입국이자 제2의 수출국
- 서울시, 인천시, 전라남도, 부산시와 우호 도시 관계를 맺고 있고 현금 단위로 부안과 신안과도 우호관계임
- 여러 한국 대학들과도 인문교류를 위해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충청 103명의 교사와 410명의 교환학생)

## 평가

이번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CESC와 우리 위원회는 양 기관을 이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양국 간 정기적인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 문안은 중국 측의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는 2019년 7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2019년 7월 CESC 위원장 임기 만료

또한 양국은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의 아시아 이사국으로서 아시아 사회적 대화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교환을 통해 양국은 물론 아시아지역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으로 디지털경제사회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중국의 오늘’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새로운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등 양국의 경험과 의견교환의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공회(노동조합)가 노동자 보험가입 및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신파디 농업회사와 노동자대표위원회(700명) 내에 ‘노사문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분쟁의 90% 해결하고 있는 론신 모터스의 노사관계는 오늘날 우리의 노사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CESC 새 집행부에 대한 금년 하반기 ‘2019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 초청과 2020년 MOU 체결을 위한 한국 초청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보다 깊은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구축되길 기대해본다.